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7, 8월 활동 보고

기세등등하던 폭염도 시간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7월 8월이었습니니다. 세종가족여러분의 개인사에는 별고가 없으셨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의 7월과8월 활동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부터 탈북장학생수가 7명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더 많은 수의 탈북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추가 기금후원이 간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활동 보고 (7월 & 8월)

● 공립다문화학교 인천한누리학교와 함께하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 공개 마스터 클래스" 주관 (7월13일)

한누리학교학생과 교직원 및 인근 사할린동포재단의 사할린동포들을 모시고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 공개 마스터 클래스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반은 마스터 클래스, 후반은 키릴 카슈닌의 연주회 순으로 진행된 행사를 통해 러시아 출신의 다문화 학생들이 고국의 유명한 연주자를 만나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용담 나눔과이음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 탈북민스피치대회 (8월 22일)

탈북민지원단체인 TNKR(Teaching North Korean Refugees)와 공동으로 탈북민영어 스피치대회를 8월22일 개최하였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총 7명의 탈북민들이 한달간 코치 및 튜터들과 열심히 준비하여서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본사 8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KBS등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들 탈북민들을 한달여간 정성을 다해 가르쳐준 외국인 선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각자가 말하는 자유는 듣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장 변호사님께서 심사위원으로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FREEDOM SPEECH CONTES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ptember 3, 2015



It's difficult to imagine the life experience of those who have lived in the totalitarian regime of North Korea and managed to escape, or the cultural adjustments they need to make once they begin life in a relatively free society. Atlas Network partner Teach North Korean Refugees (TNKR) is dedicated to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by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helping them prepare to determine their own way in life. One of its exciting events is a speech contest in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explain, "What freedom means to me," the Korea Times reports.

코리아타임즈 기사보기 >>

- **탈북대학생 리더양성 프로그램**

탈북대학생들에 대한 개별 멘토링을 멘토변호사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멘토변호사님: 이수현, 헬렌박, 김 제시카, 윤영훈, 구수현 변호사님).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40만원 총5명)

이사회에서 2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멘토지원에 관하여서는 곧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탈북민지원팀**

이번달에도 탈북민지원팀 변호사님들께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일원으로 서울남부하나센터 및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민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용준 변호사, 오종한 변호사, 윤영훈 변호사)

- **청소년지원팀**

멘토멘티간 개별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재운, 홍탁균, 김민경, 한예선, 장시영, 이해리, 류정선, 이권우, 이유경, 김태승, 이종수, 이민영, 정재욱, 황지원 변호사님)

- **청소년진로체험행사**

모두 3건의 진로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7월15일 장충고: 이종수 변호사님

- 8월11일 여러학교학생들: 한예선 변호사님

- 8월26일 환일중: 정재욱 변호사님

귀한 시간내주신 세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주민지원팀**

러시아국적 고려인 여성과 중국국적 여성 두개의 케이스를 각각 윤영훈 변호사님과 류정선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작업은 이주민지원센터의 고지운 변호사와 함께 진행중입니다.

- **밀알복지재단 법률자문**

디자인 특허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김정식 변리사님께서 검토하여 주고 계십니다.

- **시설정기후원**

[7월] 나사로 청소년의 집 30만원(6회차)/여명학교 30만원(6회차)

[8월] 나사로 청소년의 집 30만원(7회차)/여명학교 30만원(7회차)

2 기타 공익활동 소식

- 로펌프로보노 변호사 정기모임이 8월25일 12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대한변협의 김종철 인권이사님도 함께 자리를 하여서 대한변협과 각 로펌의 프로보노활동이 함께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약48명은 현재 서울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의 후원(740만원/2015.7월 8월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울회**
메르스 때문에 중단되었던 보린원 봉사활동이 8월에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8월8일 봉사활동에는 송무4팀과 한울회 봉사단, 회장단이 함께 하였고 휴지심, 풍선 등을 이용한 만들기등의 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8월 22에는 금융1팀과 한울회 봉사단, 회장단 총 9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8월8일: 이지희, 강해린, 김정은, 김혜경, 차승연, 정민경, 윤효원 님
* 8월22일: 이희경, 고소연, 김성은, 유지현, 박소미, 권은진, 구소연, 허유미, 김윤미 님)



3 2015년 9월, 10월의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계획

- 신규 탈북장학생에 대한 멘토선정 및 결연식
- 연말행사 기획 및 준비
- 탈북민초청 강연회 예정
- 송인철 변호사님 장애인관련 강의
- 청소년직업체험 행사 (배화여중, 10월 30일)

기금모금 현황

- 7월8월 수입금액: 27,325,000원 (회원기부금 및 회사매칭펀드적용)
- 7월8월 지출금액: 18,836,240원 (정기후원 지급 및 법인 운영비)
- 8월말 현재잔고: 71,896,049원 (회사측 매칭펀드는 분기별로 신청)

퇴직하신 분들 및 신규로 참여해주시기로 한 분들께 감사의 뜻 전해드립니다.



기금모금 참여 안내

신규 세종 가족 및 기왕에 참여 기회를 놓치신 구성원들께서는 참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단위는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이며 신청하여 주시면 급여자동공제 방식으로 모집되게 됩니다. 이 기금은 향후 나눔과이음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강기효 사무국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사무국장 강기효 T. 02 316 4058 E. khkang@shinkim.com